

위기 때마다 등장한 '최고의 원 포인트 릴리프'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12> 투수 이준영

정규시즌 56경기서 4승 9홀드
35이닝 소화·평균자책점 3.86
한국시리즈서는 네 경기 등판
김지찬·김영웅·디아즈 등 임무

화려하거나 돋보이지는 않지만 팀에 꼭 필요한 보직이 있다. 코칭스태프가 한 명에서 두 명의 타자를 확실하게 잡아내는 표적 등판을 위해 선택하는 투수, '원 포인트 릴리프'다.

KIA타이거즈에서는 이준영이 이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선수로 꼽힌다. 우타자에게는 약하지만 좌타자를 상대로는 속도가 빠르고 궤적이 큰 슬라이더를 바탕으로 위력을 과시한다.

이준영은 올해 정규시즌 56경기에서 35이닝을 소화하며 4승 9홀드와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했다. 멀티 이닝 소화는 한차례에 그쳤지만 역할에 맞춰 잦은 연투를 소화하는 등 묵은일을 맡는 자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최지민과 함께 장현식(75경기)과 박도규(71경기), 전상현(66경기)에 이

어 네 번째로 많은 경기에 등판했다. 이닝수로도 구원 투수 중 상위 10명 이내에 진입했다.

한국시리즈에서는 이준영의 위력이 한층 더 빛났다. 2차전부터 5차전까지 네 경기에 내리 구원 등판해 1.1이닝을 소화하며 1홀드를 챙겼고, 실점은 일절 없었다. 출루도 볼넷 한 개를 내주는 등 삼성라이온즈 타선을 봉쇄했다.

이준영은 2차전 7-1로 앞선 6회초 1사 1·2루 위기에서 양현종에게 마운드를 이어받아 김지찬에게 땅볼을 유도하며 1루 주자 김현준을 처리한 뒤 장현식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장현식은 이어진 2사 1·3루 위기에서 김현곤을 땅볼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이어 3차전 1-4로 뒤진 7회말 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앞서 백투백 홈런을 허용한 전상현을 대신해 마운드에 올라 김영웅과 9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유도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준영은 4차전 9-2로 앞선 6회말 2사 2루에서는 제임스 네일에게 마운드를 이어받아 직전 경기에 이어 두 번째 맞대결

을 치르게 된 김영웅을 플라이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수비를 끝냈다.

또 5차전 6-5로 앞선 8회초 1사 2루에서는 실점 위기를 맞은 장현식을 대신해 마운드에 올라 르빈 디아즈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직후 김영웅을 상대로 폭투를 던진 뒤 볼넷까지 주며 2사 1·3루 위기에 몰렸으나 전상현이 구원 등판해 이재현을 상대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처리하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이같이 좌타자들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인 만큼 이범호 감독은 이준영을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 필승 카드로 생각하기도 했다. 당시 6회초 무사 1·2루, 김영웅 타석에서 경기가 재개되는 상황이었다.

이 감독은 원 포인트 릴리프인 이준영을 두고 고민하다 최종적으로는 필승조인 전상현을 마운드에 올렸다. 김영웅이 번트를 시도할지 강공에 나설지를 두고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데 포수 김태군이 노련하게 타자의 의도를 읽으며 희생번트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전상현이 마운드에 올라 실점 없이 위기를 탈출하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하는 했지만 이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에서 그만큼 이준영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규빈 기자**



KIA타이거즈 이준영이 지난달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에 구원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야구 천재' 김도영, 일구상 최고타자상 수상

홍세완 코치는 프로지도자상

'야구 천재'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올해 일구상 최고 타자상의 주인공이 됐다.

사단법인 일구회는 '2024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고타자상과 최고투수상 등 9개 부문 수상자를 가렸다고 25일 밝혔다.

김도영은 최고타자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올 시즌 141경기에서 타율 0.347(544타수 189안타),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을 기록하며 공격 부문에서 모두 TOP 10에 진입했다.

또 KBO 리그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를 시작으로 전반기 20홈런-20도루, 최연소·최소 타석 내추럴 히트 포터 사이클(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대로 기록), 최연소·최소 경기 100득점, 30홈런-30도루, 최연소 100타점-100득점, 타이거즈 최초 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을 기록했다. **한규빈 기자**



특히 김도영이 올 시즌 생산한 143득점은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이자 아시아 프로야구 사상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이고, 대기록 퍼레이드의 피날레는 3할 타율과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쿼터플이었다.

그는 시즌 직후 열린 2024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에서도 오프닝 라운드 다섯 경기에 모두 출장해 세 차례 홈런포를 포함 타율 0.412(17타수 7안타), 10타점, 4득점, 출루율 0.444, 장타율 1.059를 기록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알렸다.

또 홍세완 타격 코치는 프로지도자상을 수상하게 됐다. 홍 코치가 지도를 맡은 KIA 타선은 팀 타율과 안타, 타점, 득점, 출루율, 장타율, OPS(출루율+장타율)에서 모두 선두를 달렸고 홈런에서는 삼성라이온즈와 NC다이노스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한규빈 기자**

'우승 유격수' 박찬호, 2년 연속 KBO 수비상 수상

오지환·박성한 등 경쟁자 제쳐

KIA타이거즈 내야수 박찬호가 2년 연속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LG트윈스 오지환과 투표 및 수비 기록 점수에서 동점을 이루며 공동 수상했지만 올해는 단독 수상에 성공하면서 더 뜻깊은 트로피가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4 KBO 수비상 내야수 부문과 포수 부문 수상자를 25일 발표했다. 앞서 KBO는 수비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10개 구단 단장과 감독, 코치 등 총 11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투표를 실시했다.

수비상은 정규시즌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 능력을 발휘한 선수들에게 시상하기 위해 투표 점수를 75%, 수비 기록 점수를 25% 비율로 합산해 수상자를 가린다. 수비 기록 점수는 KBO가 공식 기록 업체인 스포츠투아이와 협력을 통해 개발한 지표가 활용된다.

지표는 포지션별 2~3개 수비 항목 점수를 합산해 총점을 산출하며 수비율과 레



KIA타이거즈 박찬호. KIA타이거즈 제공

인지 팩터(야수가 9이닝을 기준으로 몇 개의 아웃 카운트를 책임졌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반영된 공식 기록 점수가 모든 포지션에 공통 반영된다.

또한 투수는 번트 타구 처리 및 견제, 포수는 도루 저지율과 블로킹율, 내야수 및 외야수는 기록되지 않은 호수비와 실책 등을 보정한 조정 KUZR(KBO식 팀 실점 기여 정도)를 반영한다.

KIA에서는 박찬호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유일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찬호는 투표 점수 67.5점과 수비 기록 점수 22.5점을 얻으며 총점 90.00점으로 LG트윈스 오지환(82.50점)과 SSG랜더스 박성한(78.75점)을 제쳤다.

박찬호는 올 시즌 134경기에 출장해 1120.1이닝 동안 수비를 소화했다. 564회의 수비 기회가 있었고 이 중 213회를 자살, 328회를 보살로 연결했다. 송구와 포구 등 실책은 23회로 수비율은 95.9%에 이른다.

2년 연속 수비상 수상에 성공한 주인공은 박찬호를 비롯해 2루수 부문의 키움이어로스 김혜성, 3루수 부문의 KT위즈 허경민이다. 전날 발표한 좌익수 부문의 SSG랜더스 길레르모 에레디아와 우익수 부문의 LG트윈스 홍창기도 2연패를 이뤘다. **한규빈 기자**

광주여대 양궁 유학생 야와타리 아카네, 일본 女양궁 국가대표 선발

올림픽 꿈 위해 지난해 광주 유학
안산 등 선배들과 훈련해 기량 향상
'광주세계선수권 출전 위해 최선'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뤘지만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무대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도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자 양궁 사관학교' 광주여대 양궁 유학생 1호 야와타리 아카네(스포츠학과 2·사진)가 일본 여자양궁 국가대표에 선발



됐다. 아카네는 지난달 열린 일본 여자양궁 국가대표 2차선발전전을 통과해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아카네는 내년 최종 선발전에서 노다 사쓰키 등 파리올림픽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과 3장이 걸린 광주세계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다툰다.

중학교때 양궁에 입문한 아카네는 광주시양궁협회와 일본양궁협회 우호교류 일환으로 진행된 광주 전지훈련에 두 차례

참가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3월에는 단짝 친구인 이와이 타카라(스포츠학과 2)와 광주여대로 진학해 양궁 유학을 시작했다. 아카네는 낯선 환경에 적응을 했지만 광주여대·광주은행 양궁부 선배들의 도움으로 금세 적응했고, 훈련을 통해 약점이던 체력을 보강하고 슈팅 타이밍과 강한 멘탈도 연마하며 기량을 향상시켰다.

아카네는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과정에서 최미선, 안산 선배들이 보여준 슈팅 자세와 흔들림없는 집중력을 보며 양궁

선수로서의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한다. 무엇보다 올림픽 스타들과 함께 한다는 자신감이 지금의 나로 성장시켜준 것 같다"며 "지난해 짧은 훈련으로 도전한 일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1차전에서 탈락했지만 나만의 특권인 올림픽 스타들에게 특별 과외를 받은 올해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며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웃었다.

이어 "꿈을 이루기 위해 값진 선택을 했고 좋은 결과도 얻었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를 배출한 명문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더 성장하겠다"며 "아직도 선배 언니들을 보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꿈꾸던 국가대표가 된 만큼 자신감도 커졌다. 언젠가는 반드시 세계양궁선수권, 아시안 게임, 올림픽 등 세계무대에 설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학교 선후배로 가장 각별하게 지내는 오예진(광주여대 3)은 "후배인 아카네와 훈련 이외에도 학교생활 등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소소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아카네와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만나자고 약속도 했다. 함께 사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